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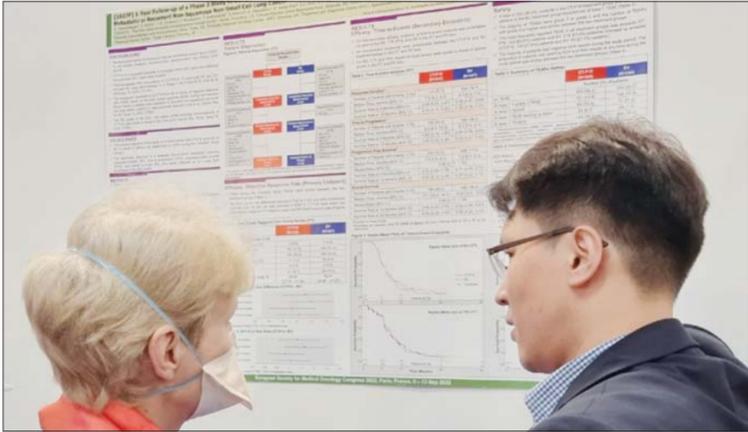
“안전성·기능성 입증”... K-바이오, 항암제 시장공략 속도

셀트리온 베그젤마 3상 결과 공개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성 입증
종근당 항암 이중항체 기능 확인
한미약품 톨론티스 美 시판 허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글로벌 항암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2022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잇따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2022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하며 8조6000억원 규모 해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셀트리온은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689명을 대상으로, 아바스틴 투여군과 베그젤마 투여군으로 나눠 최대 3년 치료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셀트리온은 마지막 환자 등재로



셀트리온이 현지시간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럽종양학회(ESMO Congress 2022)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했다.

부터 1년 시점의 생존분석과 안전성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PFS)에서 0.92, 전체생존기간(OS)에서 0.95로 나타나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사성을 입증했다. 반응지속기간(RD)과 종양진행소요기간(TTP) 등 생존 분석 지표와 안전성 결과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18일 유럽연합집

행위원회(EC)로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해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베그젤마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주마’에 이은 셀트리온의 세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하반기 아바스틴을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

리온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도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신청해 연내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글로벌 배아시주잠 시장은 약 8조 58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베그젤마를 통해 셀트리온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기존 항암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 역시 이번 ESMO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이중항체 바이오신약 ‘CKD-702’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한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CKD-702는 암의 성장과 증식에 필수적인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와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동시에 표적하는 항암 이중항체다.

임상 1상 결과 CKD-702의 모든 투여군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에서 확인된 발진, 손발톱주위염, 구내염, 오심, 저알부민혈증 등은 대부분 EGFR 및 cMET 억제제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내과 김동완 교

수는 “임상에서 나타난 안전성과 예비 반응을 바탕으로 암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 CKD-702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MET 유전자 증폭이나 MET 단백질 과발현이 동반된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아직 없어 추후 임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항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또 한번의 성장을 예고 하고 있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지난 10일 미국 FDA로부터 톨론티스의 시판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톨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신약이며 FDA 실사를 통과한 한미약품 펩타이드 바이오플랫폼에서 생산돼 기대를 모은다.

삼성생명 연구원은 “이번 FDA 승인으로 한미약품 바이오플랫폼 공장은 cGMP를 획득해 향후 랩스커버리 기반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용, 상업용까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올 추석선물 키워드 ‘실속·일상’ “‘마미톡’으로 임신부 혈당 관리하세요”

SSG닷컴, 선물세트 판매 실적 분석
생필품 종합세트 매출 비중 가장 높아

SSG닷컴이 올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13일 공개한 결과, 작황의 영향이 적은 상품군과 실속 있는 일상용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SSG닷컴에 따르면 식품이 올해에도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15% 증가했다. 특히 이른 추석에 이새과일과 꽃감류, 양곡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샤인머스켓 세트 및 애플망고, 사과와 배를 혼합해 구성한 세트가 각각 과일 선물 매출 2위, 5위에 올랐고, 꽃감과 반건식 상품 매출은 30% 늘었다. 쌀을 비롯한 양곡류 선물세트 매출도 20% 증가했으며, 여러 가지 잡곡

을 보기 좋게 포장해 ‘가심비’까지 잡은 상품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일상용품 세트 매출이 70%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용성과 가성비비를 겸비했다는 장점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바디워시, 샴푸, 치약 등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으로 꾸며진 종합 세트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식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다르게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서는 프리미엄 상품군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스 에어랩’과 ‘SK2 피테라 에센스’이 매출 1, 2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가전과 명품 화장품의 매출이 높았다.

SSG닷컴 측은 “양극화하는 소비문화가 명절 선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웅제약-한국에보트-휴먼스케이프 마미톡 연계 올바른 혈당관리 캠페인 나간다.

대웅제약이 한국에보트, 휴먼스케이프와 임신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임신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에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혈당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증가하는 태반 호르몬으로 인해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받고 인슐린 분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웅제약이 한국에보트, 휴먼스케이프와 함께 ‘마미톡’을 통해 진행하는 올

바른 혈당관리 캠페인에서는 유관학회와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올바른 혈당관리 방법 콘텐츠가 산모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모는 ▲임신성 당뇨병 검사 ▲임신 초기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임신 중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 이후 검사 신청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임신부와 연결된 병원 혹은 안내 받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과 에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채혈 없이 부착만으로 2주간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사나 수면 중에도 혈당을 자동 측정해 실시간 혈당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유전체 전문가 샘 마틴 영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해외 사업개발 총괄 부서장으로 샘 마틴(사진)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전체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서장 영입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에서 유전체·유전 상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디자인 석사를 전공한 아메리칸 협회 인증 유전상담사다.

개인 유전체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최고의 유전학 회사인 인바이테와 앰브리 제네틱스에 몸담았으며, 뉴욕 병원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유전 상담으로 임상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이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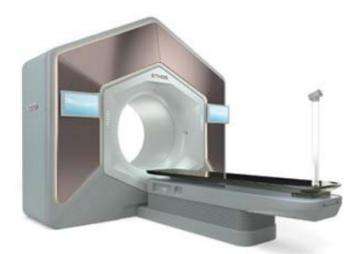
이대서울병원 국내최초 AI 방사선 치료기기 도입

맞춤형 방사선치료... 부작용 최소화

이대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방사선 치료기기인 이토스(사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토스는 매일 환자의 콘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영상을 통해 종양과 주변 장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치료 계획을 수정하여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방사선치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변 정상조직의 손상을 줄여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실시간맞춤형방사선치료의 경우 치료 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불편함이 컸으나, 이토스는 실시간 치료 계획



수정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치료 시간 증가 없이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이토스를 도입한 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원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동원F&B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한정판 출시

‘잔망루피’ 모델... 복숭아·레몬 2종

동원F&B는 MZ세대를 겨냥해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모델로 한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복숭아, 레몬) 한정판(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정판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는 특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MZ세대 놀이 문화인 밈(Meme)을 일으키고 있는 ‘잔망루피’ 캐릭터를 포장 디자인에 그려 넣은 제품으로, 새로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해 기획됐다.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는 열량이 0kcal로, 출시 초기부터 각종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MZ세대 소비자들로부터 다이어트 중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었다.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3000만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는 세계 각국의 유기농 기준을 통과한 보성산 차 잎을 향아리에 담아 향을 유지하며 발효시킨 후 저온추출공법(Cold brew)으로 우려내 홍차의 은은한 풍미가 살아 있으며, 복숭아, 레몬 등 과일의 산뜻한 맛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LG생활건강 ‘비첩 자생 에센스’ 한정판

LG생활건강이 일만 번의 섬세한 손길로 탄생한 궁중 예술 작품에 피부 속 깊은 자생의 힘을 담아낸 ‘후 비첩 자생 에센스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궁중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올해로 13번째 선보이는 ‘비첩 자생 에센스 스페셜 에디션’은 왕후의 용안이나 왕실의 공간을 가릴 때 사용되었던 ‘궁중의 발’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탄생했다.

이번 에디션은 1년에 한번 한정판으로 운영되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정품 50ml 대비 약 2배 증량한 90ml 대용량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고, 천기단 라인을 미니어처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증정한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모든 제품은 전국 주요 백화점과 방문판매, 면세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세경 기자